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의 비교 : 직업관과 자녀관을 중심으로*

Career vs. Child : Differences in the child-Rearing Practices of Korean and Japanese Fathers

강 란 혜*
Kang, Ran Hye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factors that differentiate the child-rearing practices of 495 Japanese fathers living in Tokyo and 526 Korean fathers living in Seoul. All subjects were fathers of school-age children. Findings were that the sense of devotion/reward in life is the decisive variable behind affection in the child-rearing practices of fathers of both nations. In the Japanese sample, the less they felt financial burdens and psychological constraints, the more affection shown in their child-rearing practices. In the Korean sample, more affection was noted among fathers whose primary views on child-rearing were centered on the continuity of the family line. Such socio-demographic variables as fathers working long hours and/or mothers working outside the home had a negligible influence of affection driven child-rearing practices of both groups.

* 본 논문은 2000년 미국 AERA(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의 SIG
부분에서 Round table 발표가 확정된 논문의 내용을 확장시킨 것임.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I 서론

최근 사회변동에 의한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변화, 다양화로 인해 아버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역할에 주목하게 되면서 아버지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이 연구들의 흐름을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아버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므로, 아버지 역할은 어머니 역할과 다르고, 어머니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은 중요하다고 논하는 것이 주류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의 연구는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려는 연구였다.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결과들(Barnett & Baruch, 1987; Belsky, 1984; 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 Lamb, 1997; Levi-Shiff & Israelashvilli, 1988; Parke, 1995; Volling & Belsky, 1991)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몇몇 심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Belsky(1984)는 부모의 개인적·심리적 요인, 아동의 특징, 결혼관계, 직업요인으로 구분해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Belsky, 1984; Feldman & Nash, 1983; Lamb, 1986, 1997; 數井, 1996)은 아버지의 부부관계가 양육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버지는 부부관계가 친밀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신뢰하고 자녀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ugent, 1991; 柏木·若松, 1994). 반면, 불행한 결혼을 한 아버지는 어머니로 뿐만 아니라 자식과도 거리를 두게 되어 자녀와 정서적으로 풍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Dickstein & Parke, 1988). 최근에는 생애 발달적 관점으로 출생가족((families of origin)에서의 경험이 성장한 후 아버지로서의 행동양식

에 영향을 미친다(Belsky & Pensky, 1990)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따듯하게 돌봄을 받고 그 양육방식에 만족하면 자신의 아버지를 동일시하게 되고 어릴 때 자신의 아버지와 가졌던 관계성의 질은 성장 후 아버지가 되어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Allasman, 1992; Lamb, 1997; Russell, 1986). 게다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노동시간을 들고 있는 연구도 많다(木田, 1980; 이성희·한은주, 1998, 總務廳, 1987).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서 보내는 아버지들에게 긴 노동시간은 자녀양육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보다 가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가족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양은 적다고 보고한 土谷(1992)의 연구로부터 단순히 시간적 제약만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닐 것이다.

柏木(1993)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시간적 제약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가정생활과 직업생활, 즉 직업과 자녀양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떠한 생활을 지향하는가, 게다가 어디에 자신의 삶의 축을 두는가 등의 아버지의 가치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일본 총무청 조사(1987)에 의하면 일보다 자녀양육이라는 가치관을 갖는 아버지는 미국이 35.2%인데 비해 일본은 불과 3%이었다. 1995년 일본 가정교육에 관한 국제비교 조사에 의하면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가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 일본을 비롯한 6개국(한국, 일본, 타이, 미국, 영국, 스웨덴)의 조사결과 주당 노동시간의 평균은 일본(50시간)보다 한국(53시간)이 길었지만 아버지가

평일에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한국의 아버지가 3.6시간인데 비하여 일본의 아버지가 3.3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일과 자녀양육에 관한 가치관이 반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일이란 자신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직업관), 자식이란 아버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자녀관), 이러한 의식이 실제의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須永, 1989). 이러한 가치관은 사회에 따라서 각각 다르며, 그 사회의 보편성과 고유성이 반영되므로 다른 이문화권(異文化圈)을 대상으로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그 문화와 관련하여 비교, 설명할 필요가 있다(柏木·北山·東洋, 1997). 즉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아버지의 직업관과 자녀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련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직업관에 관해서 보면 한국의 남성은 지위 지향성이 강하고,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직업상의 지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지위지향성 보다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실현을 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보다 자녀를 더욱 중요시하고 사회보다 가정을 우선 순위로 생각한다(박세천, 1987). 반면 일본의 아버지는 흔히「회사인간」, 「일 지향성」의 직업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shii-Kuntz, 1992; 三遇·失守, 1993). 이러한 가치관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심리적 부재(不在)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三遇·失守(1993)의 연구에 의하면 1989년부터 1991년에 걸쳐 일본, 미국, 독일, 벨기에의 4개국의 직업관의 변화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 결과 「일 지향성」은 일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연구로 田井中들(1990)의 연구에서도 일본의 아버지는 어느 연령에서도 「일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바블 경제의 붕괴이후 큰 사회적 변동을 경험한

수년동안, 일에 대한 가치관이 「일 지향」에서 「여가 지향」, 「지역사회 지향」으로 점점 변화해 오고 있다.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정에서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젊은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의 관심과 부부공동의 양육에의 지향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와 실제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가장인 아버지는 사회생활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기대되고, 동시에 경제적인 부양 역할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하는가의 측면에서 평가되어 왔지만 최근은 아버지도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표현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한편, 자녀관에 관해서 보면, 아버지가 자녀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는 양육행동에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한국은 산업화 이전의 농업사회에서는 자녀는 생산과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노후의 부모를 부양하는 존재, 즉 부모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존재이었다. 경제발전과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정부는 1980년대부터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남아 여아 구별 없이 들만 낳아 잘 기르자」의 캠페인이 한창이었다. 이러한 산아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자녀관은 변했다고 말할 수 없다. 자녀를 통해서 가문의 존속과 노후의 경제적 부양을 기대하는 경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자녀의 의미, 자녀를 낳는 목적에 관한 1991년도 조사(한국여성개발원, 1991)에 의하면 한국 아버지들은 자녀의 존재 의미를 「가문의 유지」, 「정서적 만족」, 「결혼하면 당연한 것」의 순으로, 어머니들은 「결혼하면 당연한 것」, 「정서적 만족」, 「가문의 유지」의 순으로 중시하고 있다. 가문의 유지는 뿌리깊은 남아 선호와 관련하고 있고 유교적인 부계혈연 의식은 변함없이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다. 남아의 상속 때

문에 남아가 태어나면 출산을 그만두는 예가 지금도 적지 않다. 한편, 급속한 사회, 경제의 변화와 함께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과도기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가족은 '자녀중심가족' 이고 부자 관계보다 모자관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자식을 통한 가계 계승과 노후의존은 점차적으로 희박해져 가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삶의 보람과 자신이 성장, 발전해 가는데 의의를 갖는 경향이 높아져가고 있다. 大野들(1996)은 자녀에 대한 가치에 관해서 6인자로 분류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교한 결과,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은 즐겁지만 부담스럽다」의 양(兩)면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아버지들은 「사회적 존재」등의 관념적, 추상적인 가치를 어머니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가치관이 실제의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관련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버지의 가치관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검토한 몇 안되는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斧出(1993)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에 정서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아버지일수록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고 자녀와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Greenberger 와 O' Neil(1994)는 아버지의 일과 자녀양육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적은 것에 주목해 일과 가정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직업상의 인간관계가 복잡해 부정적인 직업관을 가진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온화하고 민감하게 반응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일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아버지는 심리적 갈등이 적고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Grossman 들 (1988)의 연구에서도 일에 우선도가 높은 아버

지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게다가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양육행동의 양은 적지만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정적인 관계를 많이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한국 아버지를 대상으로 직업과 양육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한경혜, 1995)에 의하면 자신의 직장일에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질적, 양적으로 높고 자녀와 따뜻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직장역할과 자녀양육의 관련에 초점을 둔 연구를 보면, 직장에서 높은 스트레스가 가족 상호작용의 패턴에 악 영향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직업상에서의 경험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높인다(Grossman, 1988; 大野, 1996; 小泉, 1998)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직업관·자녀관은 모두 각각 양육행동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두 요인을 모두 함께 고려해 본다면 서로 다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관과 자녀관을 모두 동시에 고려해서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힌 연구(福丸, 1997)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lsky의 「부모의 양육행동의 결정요인 모델」을 근거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 왔던 아버지의 배경적 변인, 아동의 특성, 심리적 변인에 직업관과 자녀관을 모두 동시에 포함시켜 한국과 일본이라는 이문화(異文化) 간에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유교사상이 근본 바탕이 되어 온 두 문화에 있어서 직업관과 자녀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는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의 유사성과 상이성(相異性)을 도출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직업관·자녀관의 척도 항목은 한국과 일본의 아버지에게 의해 어떠한 구조와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2.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배경적 변인, 심리적 변인 및 직업관·자

녀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경우 서울시내에 중상류층 지역(영등포구 여의도와 강남구 압구정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의 아동을 둔 아버지, 일본의 경우는 동경(東京)시내에 중상류층 지역(世田谷區; 세타가야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의 아동을 둔 아버지가 조사대상이 되었다. 질문지는 아버지용을 작성하여 한국 총 630부, 일본 총 630부를 초등학교의 아동을 통해서 그 아버지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다시 아동을 통해

서 한국 567부(회수율 90%), 일본 573부(회수율 91%)를 회수하였다. 이중 아버지 부재(이혼등 물리적 부재, 출장 등), 무직(직업관을 보기 때문에)의 데이터는 분석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한국이 526부(94%), 일본이 495부(86%)로 총 102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는 1998년 9월4일부터 9월15일 까지 실시되었다. 질문지 해석에 관해서는 역번역(back translation)의 절차를 따랐다. 일본어에 있어서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될 수 있는 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도록 노력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한·일 N=1026)

		한 국 N (%)	일 본 N (%)
아버지의 연령	20-29세	-	-
	30-39세	118 (22.4)	114 (23.0)
	40-49세	377 (71.7)	319 (64.4)
	50세 이상	31 (5.9)	62 (12.5)
아버지의 학력	고등학교졸업	57 (10.8)	101 (20.4)
	전문대학졸업	53 (10.0)	37 (7.4)
	대학졸업	201 (38.2)	317 (64.0)
	대학원졸업	215 (40.8)	40 (8.0)
어머니의 학력	고등학교졸업	49 (9.3)	153 (31.0)
	전문대학졸업	59 (11.2)	176 (35.7)
	대학졸업	326 (62.1)	158 (32.0)
	대학원졸업	91 (17.3)	6 (1.2)
아버지의 직업	자영업	140 (26.7)	65 (13.2)
	전문직	144 (27.4)	14 (2.8)
	회사원 및 공무원	217 (41.5)	360 (71.3)
	기타	24 (4.5)	53 (10.8)
아동의 연령	7-9 세	172 (32.7)	192 (38.8)
	10-13 세	354 (67.3)	303 (61.2)
아동의 성별	남아	238 (45.6)	251 (50.9)
	여아	284 (54.4)	242 (49.1)

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결과, 한국과 일본 공통으로 아버지들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어머니들의 연령은 한국은 30대, 일본은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아동의 평균연령은 한국이 10.3세, 일본이 10.1세였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한국의 경우 10.8%가 고등학교 졸업, 10.0%는 전문대 졸업, 38.2%는 대학졸업, 40.8%는 대학원을 졸업했다. 일본의 경우 20.4%가 고등학교 졸업, 7.4%는 전문대 졸업, 64.0%는 대학졸업, 대학원 졸업이 8.0% 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한국의 경우 9.3%가 고등학교 졸업, 11.2%는 전문대 졸업, 62.1%는 대학졸업, 17.3%는 대학원을 졸업했다. 일본의 경우 31.0%가 고등학교 졸업, 35.7%는 전문대 졸업, 32.0%는 대학졸업, 대학원 졸업이 1.2%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한국의 경우 자영업 26.7%, 전문직 27.4%, 회사원 및 공무원이 41.5%이고, 일본의 경우 자영업 13.2%, 전문직 2.8%, 회사원 및 공무원이 71.3% 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한일에서 큰 차이를 보여 한국의 경우 취업주부는 23.2%, 일본의 경우는 43.9%이었다 <표 1>.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버지용 질문지는 총 6개(직업관, 자녀관, 양육행동, 결혼만족도, 아동기 경험, 아동의 성격)의 검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1) 아버지의 직업관

아버지의 직업관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말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MOW(三隅·失守, 1991)의 질문항목을 참고로 작성한 福丸(1997)의 직업관을 수정, 보완해서 총 29문항을 사용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점) 부터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4점)까지의 4점 척도에 의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긍정적인 직업관을 의미한다. 직업관 하위변인의 신뢰도 계수는 충실·자아실현의 직업관은 .86, 제약·부담의 직업관은 .81, 경제지향성의 직업관은 .76 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자녀관

아버지의 자녀관은 자녀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존재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柏木·若松(1994)와 大野들(1996)의 척도를 참고로 29문항을 작성했다.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4점)까지의 4점 척도에 의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긍정적인 자녀관을 의미한다. 자녀관 하위변인의 신뢰도 계수는 충실·삶의 보람의 자녀관은 .77, 경제적 부담·심리적 제약의 자녀관은 .75, 家の 계승의 자녀관은 .68 이었다.

3)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강란혜·사가라준꼬(1998)의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12문항을 사용했다. 본 척도를 사용한 것은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비교연구(강란혜·사가라준꼬, 1998)에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버지가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가 모르는 것에 대해 물으면 알 때까지 설명해 준다”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자녀가 고민에 대해 상담할 때 신중히 들어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에 의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4)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吉村(1994)의 10 문항중 2문항과,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일 비교연구에서 사용한 강란혜·永久(1997)의 연구에서 3문항을 선택하여 총 5문항(예: 부인을 인간적으로 존경한다고 생각한다)을 채택하여 사용했다. 많은 결혼만족도 척도중 본 척도를 사용한 것은 선행연구(吉村 1994; 강란혜·永久, 1997)에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4점) 부터 결코 그렇지 않다(1점)까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76이었다.

5)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은 아버지가 아동기 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애정에 관해서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euter & Biller(1973)의 척도를 기초로 번역하여 사용한 허선자(1992)의 문항을 참고로 5문항을 채택해서 사용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기 경험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

신의 아버지로부터 정서적인 경험을 많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는 .89이었다.

6) 아동의 성격

아동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山崎·菊野(1990)의 공격성 척도와 일본 총무청(1987)의 아동과 아버지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를 참고로 5문항을 작성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잘 듣는다” 라는 질문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자녀를 기르는데 까다롭지 않고 쉽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이상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A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 α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상관분석, 위계적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한·일 아버지의 직업관·자녀관 척도의 요인구조 및 하위변인 비교

아버지의 직업관·자녀관 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1021명을 합하여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변인들의 공통요인을 찾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하나의 인자에 절대치 .40 이상의 부하량¹⁾을 갖

는 것을 조건으로 항목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직업관’ 척도는 3요인(충실·자아실현, 제약·부담, 경제지향성) 18항목과, ‘자녀관’ 척도 3요인(충실·삶의 보람, 경제적 부담·심리적 제약, 家の 계승) 20항목이 추출되었다(표2) <표3>. 각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각 요인별 Cronbach α 의 계수는 .68-.86의 범위에 속하였으며, 전체 척도의 Cronbach α 의 계수는 직업관은 .90, 자녀관은 .89

1) 요인분석에 의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으로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이면 고려할 만한 유의성을 갖는 것이고, .40 이상이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 .50 이상일 경우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통계분석, 1997)

〈표 2〉 직업관의 요인분석 결과

(한일: N=1021)

인자명	번호	항 목	인자 I	인자 II	인자 III
충실·삶의 보람	16	일은 인생에 충실감을 가져온다	.831	.072	-.047
	17	일은 자신에 있어서 삶의 보람이다	.762	.132	-.083
	9	일은 자기실현의 장이다	.751	.044	-.094
	4	일은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712	.056	-.108
	1	일을 통해 자신이 성장한다	.692	-.067	-.183
	10	일을 하지않는 인생은 보람없다	.642	.073	.144
	2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이다	.638	.044	.003
	5	일을 한다는 것은 사회에의 공헌이다	.629	-.016	-.123
	6	일로 인한 늦은 귀가시간은 어쩔 수 없다	.592	-.047	-.056
	8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은 양육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582	.222	.135
20	일에 충실하는데는 가족의 이해가 중요하다	.449	-.176	.158	
제한·부담	3	일은 자유시간을 빼앗는다	.148	.807	-.021
	13	일은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는다	-.121	.763	.152
	7	일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빼앗는다	-.040	.749	-.113
	27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	-.243	.531	.616
경제지향성	11	일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가족을 지탱하는 것이다	-.020	-.257	.735
	12	일은 싫어도 계속해야 된다	.093	-.251	.691
	14	생활비를 벌 수 있으면 일의 내용에 구애하지 않는다	-.243	-.004	.616
		고 유 치	7.53	3.82	2.23
		인자 기여율(%)	39.60	20.10	11.74
		누적 기여율(%)	39.60	59.7	71.44

주) 인자 부하량의 절대치가 0.4 이상의 것을 채용하였다.

로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직업관과 자녀관을 한·일 비교한 결과는〈표4〉 〈표5〉 [그림1]에 제시하였다. 직업관의 하위요인에 관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충실·자아실현」 「제한·부담」 「경제지향성」의 각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t=12.0, p<.001$; $t=1.25, p<.05$; $t=2.28, p<.05$), 「충실·자아실현」은 한국의 아버지가 높고 「제한·부담」 「경제지향성」에서는 일본의 아버지가 높은 득점을 나타냈다. 자녀관의 하위요인에 관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경제적 부담·심리적 제약」 「家の 계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t=4.20, p<.001$; $t=15.88, p<.001$), 「경제적 부담·

심리적 제약」은 한국보다 일본의 아버지가 높은 득점을 나타낸 반면, 「家の 계승」은 한국의 아버지가 높은 득점을 나타냈다. 「충실·삶의 보람」의 자녀관에 관해서는 양국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양국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한·일 비교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아버지의 관련변인 및 직업관·자녀관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

〈표 4〉 직업관 척도특점의 한일비교

	한 국		t 값
	평균(SD)	일본 평균(SD)	
충실·자아실현	3.26(0.39)	2.94(0.46)	12.0**
계약·부담	2.43(0.56)	2.48(0.59)	1.25*
경제지향성	2.60(0.53)	2.68(0.60)	2.28*

**p<.001 *p<.05

〈표 5〉 자녀관 척도특점의 한일비교

	한 국		t 값
	평균(SD)	일본 평균(SD)	
충실·삶의보람	3.36(0.38)	3.38(0.43)	0.65
경제적부담·심리적계약	2.07(0.53)	2.21(0.53)	4.20***
家の계승	2.76(0.48)	2.30(0.48)	15.88***

***p<.001, **p<.05

지, 어떤 하위변인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잘 예언해 주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제 1단계에서 독립변수로서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노동시간, 직업, 귀가시간, 아

동의 성격, 결혼년수, 어머니의 직업의 유무, 아동의 성별과 연령의 10개의 인구학적변인, 즉 통제변인을 투입하고, 제 2단계에서는 아동기의 정서적 경험, 결혼만족도, 자녀관, 직업관을 독립변인으로서 투입하는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표 3〉 자녀관의 요인분석 결과

(한일: N=1021)

인자명	번호	항 목	인자	인자	인자
			I	II	III
충실·삶의보람	7	자식은 자신의 인생에 충실감을 가져온다	.756	.048	-.064
	18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693	-.060	.028
	8	자식이 없는 인생은 덧없다	.598	.037	-.234
	17	자신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다지 큰 가치를 갖지않는다	.596	.032	.241
	1	자식을 보고 있으면 기운이 솟는다	.585	-.051	-.012
	16	자식의 덕택으로 자신도 성장한다	.523	.282	.379
	12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503	-.336	-.008
	10	사회를 짊어 갈 다음세대를 위해 자녀양육은 중요하다	.493	-.078	-.234
	21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483	-.190	-.352
경제적부담·심리적계약	5	자식을 가지면 경제적 부담이 크다	.054	.756	.139
	28	자식은 돈이 드는 존재이다	.020	.729	.057
	9	자녀양육은 자신의 자유시간을 빼앗는다	-.046	.722	-.087
	13	자식으로 부터 해방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412	.574	-.041
	11	자식을 가지면 정신적으로 쉴 수 없다	-.287	.550	-.210
3	자식은 자신의 인생에 많은 부분을 빼앗는다	-.020	.493	-.254	
家の계승	27	자식은 가계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존재이다	.012	.033	.723
	26	자식은 아버지가 통제·지휘해야만 한다	-.214	-.083	.652
	22	자식은 노후의 자신을 돌보아 줄 존재이다	-.096	-.124	.630
	19	자식은 미숙하기 때문에 어른의 지시를 따라야만 한다	.096	-.081	.622
	24	자식은 자기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446	-.060	.555
		고 유 치	3.62	2.85	2.48
		인자 기여율(%)	18.11	14.23	12.38
		누적 기여율(%)	18.11	32.34	4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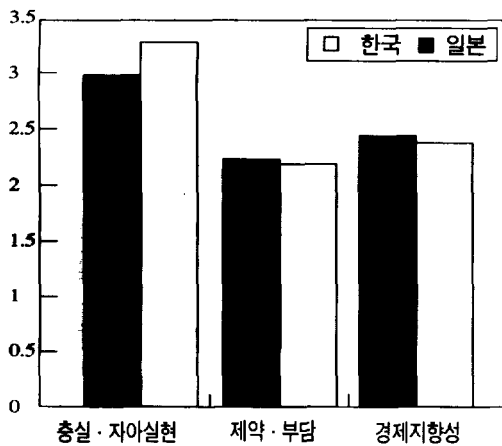
주) 인자 부하량의 절대치가 0.4 이상의 것을 채용하였다.

〈표 6〉 아버지 양육행동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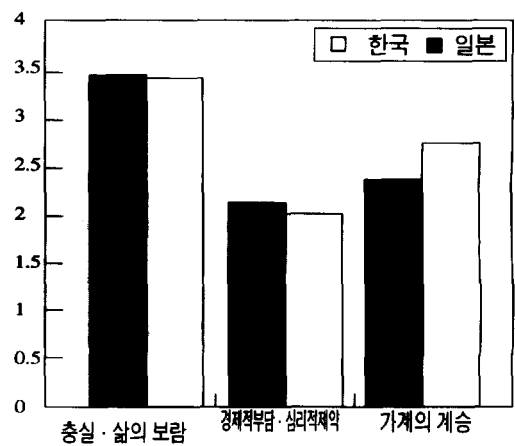
독립변수	한국 (N=507)		일본 (N=471)	
	1 단계	2 단계	1 단계	2 단계
	β	β	β	β
아버지의 연령	.05	.05	-.00	.02
아버지의 학력	-.00	-.02	.08 ***	.06 **
어머니의 학력	.03	.01	-.03	-.05 *
아버지의 직업	.01	.01	.02 *	.02 **
노동시간	-.01	-.02	.01	-.00
결혼년수	-.02	-.01	-.02	-.01
아동의 성별	-.01	-.03	.02	-.01
아동의 연령	-.02	.02	-.04	-.02
귀가시간	.01	.01	-.02	-.03
아동의 성격	.29 ***	.16 ***	.13 **	.07
어머니의 직업유무	-.08	-.05	.02	.05
아동기 경험		.05 **		.04 *
결혼만족도		.12 **		.02
충실·삶의보람		.36 ***		.35 ***
경제적부담·심리적제약		-.00		-.04 *
家の계승		.11 ***		.04
충실·자아실현		.05		-.04
부담·제약		.03		-.06 *
경제지향성		-.01		-.05
F 값	5.91 ***	13.23 ***	2.89 ***	8.40 ***
R ²	.11	.34	.06	.26
Adj-R ²		.23		.20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남아=1, 여아=2), 어머니의 직업유무(없다=1, 있다=2)



[그림 1] 직업관에 관한 한·일비교



[그림 2] 자녀관에 대한 한·일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6).

인구학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해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분석한 결과, 투입한 변수는 한국의 경우는 11%, 일본의 경우는 6%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양국 모두 낮았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변인에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결혼만족도, 자녀관, 직업관을 포함해서 분석한 결과 이는 아동기 때 자신의 아버지와 긍정적인 관계로 인식한 아버지일수록, 자식을 경제적 부담이나 심리적 제약으로 덜 느끼고, 자신의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일수록, 또한 일에 관해 부담이나 제약을 덜 느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충실·삶의 보람」의 자녀관(β .36)이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이었고 결혼만족도(β .12), 「家の 계승」의 자녀관(β .11), 아동기 경험(β .05)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경우 「충실·삶의 보람」의 자녀관(β .35), 「부담·제약」의 직업관(β .06), 「경제적 부담·심리적 제약」(β .04), 아동기 경험(β .04)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아버지들이 일본 아버지들과 다른 점은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식을 가계의 계승의 존재라는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일수록,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6).

IV.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 아버지의 직업관과 자녀관을 중심으로 자녀양육행동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양국(兩國)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관」 척도는 「충실·자아실현」「계약·부담」「경제지향성」의 3요인과, 「자녀관」 척도는 「충실·삶의 보람」「경제적 부담·심리적 제약」「家の 계승」의 3요인이 추출되었다. 아버지의 직업관과 자녀관에 관해서는 한·일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관에 관해서 「충실·자아실현」의 직업관은 한국 아버지의 특점이 높고, 「계약·부담」의 직업관, 「경제지향성」의 직업관은 일본의 아버지가 높은 특점을 나타냈다. 즉 한국의 아버지는 일본의 아버지에 비해 일이란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기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되었던 한국의 아버지가 일본의 아버지보다 학력의 평균치가 높아 아버지의 직업과도 관련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의 아버지의 학력은

72%가 대졸 이상인 반면, 한국의 아버지는 79%가 대졸 이상이고 직종에서도 27%가 전문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아버지는 학력이나 직종으로 보면 일본의 아버지보다 일에 만족도가 높고 경제적 수준도 비교적 높은 환경에 있는 것이 예상된다. 직업과 학력의 요인은 직업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柏木·松若, 1994)는 배경으로부터 한국의 아버지는 「충실·자아실현」의 직업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직장 일에 대해서 자기실현의 장(場)으로 보기 보다 「계약·부담」을 동반하는 것, 가족을 부양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한국과 비교해서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shii-Kuntz(1992)에 의하면 일본의 아버지는 일에 대해 “생계수단으로서의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국제비교에서도 일본 아버지들이 생계수단으로서의 일 중심성의 직업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OW의 국제비교조사, 1987). 이는 일본의 아버지는 일이란 자신의 자기실현의 장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경제적 인면에 집중하고 있는 점에서 경제적 수단으로 생

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것(福丸, 1997)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으면 충실감을 얻을 수도 있고 제약감이나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회사가 한국의 회사보다 회사 내에서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직장에서 상사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일본의 아버지는 직장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 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자녀관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충실·삶의 보람」, 「경제적 부담·심리적 제약」, 「家の 계승」의 3요인을 얻었다. 자녀관에 관해서는 「경제적 부담·심리적 제약」, 「家の 계승」의 2요인에서 한·일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家の 계승」은 한국의 아버지의 특점이 높고, 「경제적 부담·심리적 제약」에서는 일본의 아버지가 높은 득점을 나타냈다. 「家の 계승」의 자녀관은 문화 차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아버지는 자식을 가계의 계승자로, 노후에 부양 받을 존재로 보는 의식이 강했다. 이것은 한국의 정신적 사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교의 영향, 예를 들어 부계혈연 의식이 지금까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일본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는 반면 심리적 제약감과 경제적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 양면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과외비등 교육에 관한 비용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일본 후생성에 의하면 과외 비의 비율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76.3%,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79.1%로 자녀를 위한 교육은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규정하는 요인을 아

버지의 직업관과 자녀관을 중심으로 노동시간, 결혼만족도, 아동기경험 등을 포함해서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양국간의 공통점을 보면,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해서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해서 양국 모두 「충실·삶의 보람」의 자녀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자녀관은 양국 모두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자녀의 존재란 인생에서 삶의 보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이는 양국 모두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동시에 양국간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면, 한국의 경우 「家の 계승」의 자녀관이, 일본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심리적 제약」의 자녀관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자식에 대해 경제적 부담·심리적 제약을 적게 느낄수록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大野·柏木·松若, 1996)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자녀를 위한 교육비(사립초등학교, 과외비등)가 가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는 「家の 계승」의 자녀관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국의 아버지는 자식이란 가계의 계승을 위한 존재라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으로 문화적인 영향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 양육행동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직업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아버지는 일 보다 가정을 우선한다는 국제비교조사(1995)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부담·제약」의 직업관이 영향을 미쳤다. 즉 일에 대한 부담을 느낄수록 양육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 보다 일본의 아버지들이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일을 집에까지 가져오는 경향이 일본 아버지가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규정하는 큰 요인이었지만 일본의 경우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아버지에 있어서 부부간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이 증가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은 결국 성공적인 결혼생활과 관련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혼 만족도는 어머니 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선행연구(Barnett & Baruch, 1987; Belsky, 1984; Levi-Shiff & Israelashvilli, 1988; Russell, 1982; Volling & Belsky, 1991 허선자, 1992; 장미나, 1994)와 일치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의 책임을 공유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의 갈등은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함인희, 1997). 반면, 일본의 경우는 결혼만족도가 한국보다 낮고, 한국의 부부보다 남편과 부인이 개인화(個人化)되어 있어(永久·강관혜, 1997; 柏木, 1996), 부부만족도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아동의 성별, 연령은 한·일의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피험자의 아동의 연령이 아동기에 한정되어 있고 게다가 산아제한 때문에 각 가정의 자녀수가 적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선호적인 태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한국, 일본 모두 노동시간 등의 인구학적변인의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양국 모두 노동시간 등의 물리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일과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아버지는 자식의 존재를 어떻게 의미부여 하고 있는가에

따라 실제의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정도는 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검토할 점이 남아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될 수 있는 한 양국의 생활수준이 비슷한 지역을 선택해서 무작위 추출을 했다. 그러나 표집 대상이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평균 40대의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아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폭 넓은 대상에 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직업관과 자녀관은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일의 경험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두 문화 아버지 연령에 따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세분화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버지의 아동기경험은 아버지 자신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의한 것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회상은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Acklin et al., 1989), 특히 부정적인 정서상황을 많이 경험한 아버지는 과거나 현재의 부정적인 경험에 집착하기 쉽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연구가 요구된다.

끝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직업과 자녀양육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아버지가 지각하는 자녀관·직업관과 자녀양육행동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부자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유익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아버지 자녀양육행동에 미치는 개인차, 문화차에 관한 비교 문화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란혜 · 사가라준호(1998).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성 역할 태도와 양육참여행동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37-150.
- 강란혜 · 나가시히사코(1997). 家族の個人化(2)-日韓比較研究- 日本發達心理學會 第8會大會發表論文.
- 박세천(1987). 교사의 교직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장미나(1994). 남성의 직업역할과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원 · 원태연(1997). 통계조사분석 II. 고려산업정보원.
- 한경혜(1995). 중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95 가 정복지세미나-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한국가족학연구회.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klin, M. W., Sauer, A., Alexander, F., & Dugoni, B. (1989). Predicting depression using Earlier childhood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 51-59.
- Barnett, R., & Baruch, G.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Volling, B. L. (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461-474.
- Cos, M. J., Owen, M. T., Lewis, J. M., & Henderson, V. K. (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0, 1015-1024.
- Greenberger, E., & O'Neil, R., & Nagel, S. K. (1994). Linking workplace and homeplace: Relations between the nature of adult's work and their parenting behaviors. *Development Psychology*, 30, 990-1002.
- Grossman, F. K., Pollack, W. S., & Golding, E. (198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82-91.
- Ishii-Kuntz, M. (1992). Japanese fathers work demands and family roles. In Hood, J. C. (Ed), *Men, Work and Family*. Sage public. 45-67.
- Lamb, M. E. (1997).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Levy-Shiff, R. & Israelashvili, R. (1988). Antecedents of Fathering: Some Further Expl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434-440.
- Parke, R. D. (1995). *The father: Handbook of parenting*. Vol. 3. Lawrence Erlbaum Associates, New Jersey.
- Russell, G. (1982). Shared caregiving families: An Australian Study. In M. E.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139-172.
- 福丸由佳 (1997). 子どもの関わりと父親の發達-都市部と郡部の地域差の検討. 母子研究, 18, 60-68.
- 柏木恵子(編著)(1993). 父親の發達心理學. 川島書店.
- 柏木恵子 · 若松素子 (1994). 「親となる」ことによる人格發達 發達心理學研究. 5(1), 72-83.

- 柏木恵子 (1998). 社會・家族・個人の發達 社會變動と家族發達—子どもの價値・親の價値—柏木恵子編・結婚・家族の心理學. ミネルヴァ書房.
- 木田淳子 (1980). 共働き家庭における父親の育兒行動 滋賀大學教育學部紀要, 30, 116-135.
- 小泉智恵 (1998) 「職業生活と家族生活」 結婚・家族の心理學 ミネルヴァ書房.
- 三隅二不二編 (1987). 働くことの意味 MOWの國際比較研究. 有斐閣.
- 日本女子社會教育會 (1995). 家庭教育に関する國際比較調査報告書: 子どもと家庭生活についての調査(財)日本女子社會教育會.
- 斧出節子 (1993). 男性にとっての子育ての意味 家族關係學, 12, 1-23.
- 大野祥子・柏木恵子 (1996). 父親: 兒童心理學の進歩. 金子書房.
- 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編 (1987). 日本の父親と子供: アメリカ・西ドイツとの比較. 大藏省印刷局
- 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編 (1987). 子供と家族に関する國際比較調査. 大藏省印刷局.
- 吉村理穂 (1994). 幼兒をもつ母親の自己 力感—ソーシャルサポートと子どもの氣質の影響の検討 お茶の水女子大學大學院 平成5年度修士論文
-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7). ビジュアル子どもと家庭 東京印刷株會社
- 數井みゆき, 中野由美子 (1996). 子どもとのかかわり, 父母比較. : 牧野カツコ, 中野由美子, 柏木恵子. 子どもの發達と父親の役割. ミネルヴァ書房. 98-106. 山崎・菊野 (1990). 心理尺度ファイル. 恒内出版.